

전남의 아들 김수완·황희태 릴레이 금 메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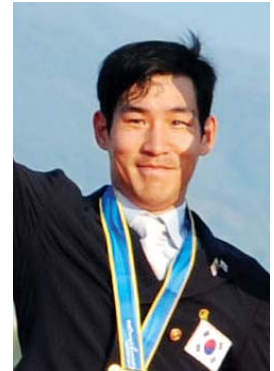


목포고 출신 유도 김수완이 지난 13일 오후 중국 광저우 후아공체육관에서 치러진 아시안게임 유도 100kg 이상급 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탄그리에프를 한판승으로 메치고 있다. /연합뉴스

승마 간판 최준상 마장마술 3연속 정상 광주체고 양학선 도마 1위로 결선진출

광주·전남 출신의 국가대표들이 한국의 메달 레이스에 주역이 되고 있다. 제 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하는 한국이 14일(오후 8시 현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2개로 금메달 8개의 일본을 제치고 2위를 달렸다. 대회 첫 날인 13일 4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한국은 14일 4개의 금메달을 싸움이 한 사격과 5번째 금메달이 나온 유도의 선전에 힘입어 8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날 사격에서는 3관왕이 탄생했다. 이대명(22·한체대)이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00.8점을 쏜 본선 585점과 함께 685.8점을 기록, 684.5점을 쏜 중국의 베테랑 탄종량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남 50m 권총과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진종오(31·KT)·이상도(32·창원시청)와 금메달 두 개를 싸웠던 이대명은 개인전에서도 금을 명중, 3관왕에 올랐다. 임신 7개월의 김윤미(28·서산시청)는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으로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을 가져가며 '2관왕'이 됐다.

사이클 개인 추발에서 장선재(26·대한지적공사)가 금빛 질주를 펼쳤고, 유도 김재범(25·한국마사회)은 남자 81kg에서 금을 메쳤다. 여자 -70kg의 황예슬은 북한 선경과의 남북 대결에서 경기 12초 만에 반칙승으로 우승했다. 광주·전남 출신들의 금 소식도 이어졌다. 광주 출신의 최준상(32·KRA 승마단)이 이날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김군섭·김동선·황영식과 '금빛 연가'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우승으로 한국은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정상에 오르는 위업을 달성했다. 부산·도하대회에서 단체전 및 개인전 우승을 휩쓴 한국 마장마술의 간판 최준상은 '3회 연속 2관왕'에 청신호를 켜다.



〈최준상〉

국기별 메달 순위 (14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31	13	11
2	한국	13	9	12
3	일본	8	15	14
4	인도네시아	1	3	1
5	홍콩	1	2	1

앞선 13일에는 목포고 출신 김수완(22·용인대)이 남자 +100kg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탄그리에프 압돌로를 경기 시작 56초 만에 한판승으로 제압하고 한국 선수단에 첫 개인종목 금메달을 선물했다. 역시 목포고 출신인 황희태(32·수원시청)도 남자부 -100kg 결승에서 일본의 아나이다카사를 상대로 한판승했다. 2006년 도하대회 90kg 이하급 금메달리스트인 황희태는 체급을 올려 출전해 2회 연속 금메달을 가져갔다. 김수완과 황희태의 활약으로 유도는 종주국 일본을 따돌리고 14일 현재 5개의 금메달을 가져오는 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 출신의 주옥(21·농협중앙회)이 14일 여자 경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유도 공자영(25·영암)은 여자 63kg에서 동메달을 메쳤다. 13일에는 광주출신의 체조대표 양학선(18·광주체고)·김희훈(19·한체대)이 남자 체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보냈다. 한국체조의 기대주 양학선은 도마에서 16.400점을 획득, 1위로 결선에 진출해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수완, 가족 응원의 힘으로 깜짝 금



“가족들이 모두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경기 직전 가족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100kg 이상급에서 '깜짝' 금메달을 차지한 김수완(22·용인대)이 우승의 기쁨을 끈끈한 가족의 정으로 돌렸다.

13일 유도 경기가 치러진 광저우 화공체육관에는 김수완의 아버지 김동택 씨와 어머니 윤성숙 씨를 비롯해 남동생까지 전 식구가 원정 응원에 나섰다. 김수완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전에서 탄그리에프 압돌로(우즈베키스탄)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다 경기 시작 56초 만에 발뒤축걸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목포고 출신으로 올해 대학 졸업반인 김수완은 이번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게 됐으며 내년 3월 기본 징계 남양주시청으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됐다. 김수완은 “4강에서 ‘난적’ 가미가와 다이키(일본)와 초반부터 팽팽한 맞서 잠기를 바탕으로 지도를 받아낸 게 금메달의 승부처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희태 “日선수 질러있는 얼굴에 금 예감”

90kg이아 100kg 2회연속 금

“아나이가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바로 접니다. 중압감에 얼굴이 질러있는 것을 보고 이겼구나 했습니다.” 한국 남자 유도 대표팀의 만형 황희태(32·수원시청)가 결혼기념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100kg 이하급 결승에서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아나이가 다카마사(일본)를 한판승으로 꺾었다.

이번 대회를 대비해 비밀스럽게 연습해왔던 어깨로 들어메치기가 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줬다. 지난 2006년 도하대회 때 90kg 이하급 금메달을 차지했던 황희태는 이로써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체급을 바꿔가며 우승한 선수가 됐다. 목포고 출신인 황희태는 “전 체급을 통틀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가 없다. 신장의 열세를 체력과 투지, 오기로 버텼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는 “아나이가 100kg 이하급에



서 가장 강하지만, 소매를 많이 잡는 나를 가장 싫어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